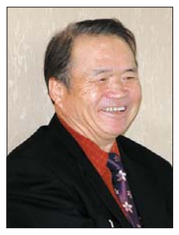
오륙도 칼럼

야생화에도 봄이 온다



이 종 호

『죽은 땅에서 라일락 키워내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키워내는 봄』. (T.S. 엘리엇) 봄이 왔다.

이번 겨울의 꼬리는 유난히 길다. 하지만 늦추위 속에서도 봄꽃은 약속이라도 지키듯이 웃음이 터지고, 나무는 저마다 가슴이 볼록해진다.

지난겨울 꽃밭엔 인동초만이 겨울을 이기고 그 푸름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이제 꽃밭에 빨간 할미꽃 몇 송이가 다소곳이 피어 있고, 민들레와 엉겅퀴는 여린 잎 서너 개 붙이고 햇볕을 쬐고 있다.

산괴불주머니, 노루오줌, 까치머리 등도 새 봄 맞이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화단이라지만 실은 손바닥만한 꼬마 채마밭이다.

원래 잔디밭이었으나 잔디를 걷어내고 산꽃 들꽃을 키워 오고있다. 봄이면 거긴 야생화만 있는 게 아니다.

꽃 사이사이에 상추, 들깨, 오이 등 먹거리 채소도 기른다.

산을 오를 때마다 자주 만나는 야생화를 데려와 기르기로 해 본 게 오늘에 이르렀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더니 십여 년이 흘러 이제 제법 많은 가지 수의 꽃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화분에는 이름도 모르는 꽃들이 제법 된다. 그들은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고 서러워하거나 누굴 원망하지 않는다.

그냥 이름모를 꽃으로 통한다. 말없는 참 착한 친구다.

이런 야생화를 키운다는 게 쉽지는 않다. 이식이 잘 되지 않는다.

맑은 공기, 신선한 바람, 따듯한 햇볕을 맞으며 잘 사는 그들을 억지로 각종 공해에 찌든 도회지 주택에 옮겨서 키운다는 게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이게 한 인간의 과욕인지 알면서도… 게다가 그들을 주검에 이르게 함이 죄스럽기도 하다. 요즘은 야생화 채취가 금지되어 있어 야생화 전문 화훼점에 들러 좋아하는 꽃을 찾고있다.

화려한 장미 보다 연민의 정이 가는 것이 들꽃 산꽃이다. 볼품없는 꽃송이에 달린 잎사귀들이 아기 손 같이 언제 봐도 예쁘고 귀엽다.

한편 눈곱만한 꽃이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산 속에 피어 있는 외로운 모습이 가엽고 안쓰럽기도 하다.

그 보잘것없는 꽃들이 나 자신의 자화상이며 오늘의 내 삶을 보는 것 같다. 이 시대를 어렵게 살아가는 숱한 서민들의 모습인지 모르겠다.

산에 피면 산꽃이요 들에 피면 들꽃. 잘 꾸민 꽃밭이나 화분에 자라도 야생화는 외모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어떠한 난관도 헤쳐 가는 생활력이 강한 게 이들의 장점이다. 온실 속의 기름기 흐르는 꽃들과는 매우 다르다.

길가의 들꽃인 민들레는 옛날 양공주들의 심벌인 것만 보아도 그렇다. 짓밟아도 짓밟아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강인한 그 노란 꽃. 야생화는 질긴 민초고 매운 땡초다.

이른 봄 한 포기의 야생화 속엔 고뇌에 찬 시가 녹아 있다.

구수한 메밀차 한 잔 들고 그들과 소리 없는 대화를 하는 한낮이 즐겁다. 꽃은 웃어도 말을 해도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러다가도 겨울이 되면 그들은 씨앗이나 줄기를 남기며 그 모습은 사라진다.

야생화가 없는 겨울 산야와 꽃밭은 한마디로 삭막하다.

겨울은 잔인하다. 그들을 자주 찾아오던 벌과 나비들의 발길도 뚝 끊긴다. 그러나 오늘처럼 봄이면 다시 새싹을 내밀며, 우리를 보며, 웃으며 반긴다. 움츠림을 벗어나 실의를 딛고 봄빛으로 돋아난다.

그때 야생화는 새로운 희망의 새싹이 되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 야생화는 산과 들에서 모진 추위와 세찬 바람을 이겨내고 긴 세월을 되새김질해서 토해 내는 붉은 피이며 마음이나 물질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슴 설레게 하는 희망이다.

시인·전 남구문인협회장·대연1동

선용의 1000자 지혜 ⑭

밑 빠진 술잔

입술이 가랑잎보다 더 가벼워서 믿고 생각하여 해준 말인데 그걸 오래 담아두지 못하고 미주알고주알 바로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다.

입술 밖으로 나오는 순간 비밀은 없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앞으로 조언이나 좋은 정보는 얻기 어려울 것이고 두 사람의 사이는 거리가 생길 것이다.

당계공(堂谿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모시는 왕은 너무 수다스럽고 입이 가벼워 신하들이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도 금방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버리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을 위해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자리를 생각하여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계공은 나라를 생각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왕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려고 마음먹었다.

당계공이 왕을 찾아뵙고 말했다.

"여기 금으로 만든 술잔이 있는데 만약 밑이 빠진 것이라면 술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당연히 안되지."

"그럼, 흠이 없는 흙으로 만든 술잔에는 술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지."

왕의 대답에 당계공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금잔이라고 할지라도 밑이 빠졌다면 술 한 방울도 부을 수 없습니다. 천하를 다스리고 많은 신하를 거느리는 왕도 이 술잔과 같습니다. 신하가 왕을 생각하여 좋은 말씀을 드려도 왕이 그 신하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하가 충심으로 한 말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 수다스러운 사람에게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이 무거운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찾아와서 무슨 말이나 안심하고 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며 신중해야 하고 또 올바른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가볍고 경망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술잔에 술을 담을 수 있도록 밑이 완전한지 살펴 봐야 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후환이나 자리 걱정에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하는데, 진정 훌륭한 아랫 사람은 윗사람에게 충언도 꺼리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꼭 생각해야할 것은 상대의 자존심을 최대한 살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문학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접종사업 홍보 철저를

첫 아이를 낳고 10여년 만에 둘째를 키우며 예전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19개월 된 아이의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에 전화를 했다. 담당자는 요즘 필수예방접종비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 5천원이면 맞을 수 있다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다.

집 가까운 곳에 있는 해당 병원도 알려줬다. 곧바로 그 곳에 전화를 걸었더니 간호사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기존 금액과 같다는 내용의 대답을 나에게 들려줬다.

다음날 보건소에 가서 내용을 물었더니 협의를 마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보건소와 병원 말이 서로 달라 헷갈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답답했다.

앞으로 보건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박지영(우암1동)

학교를 노인여가 공간으로

학교를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 외에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이전에 내가 살던 중학교에서는 노인들의 레저를 위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나이 드신 분들이 찾아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피해 주로 아침이나 저녁에 노인들이 게이트볼 게임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일과나 학습활동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사실상 노인들은 길거리나 산책로를 산책하는 외에 별달리 운동을 하지도 않으며 더구나 이들이 놀고 쉬고 운동할 만한 곳은 더욱 찾기 힘들다.

그저 낮에는 양지가 들어오는 곳이나 노인정에 가서 적당히 휴식하고 올뿐이며 특별히 운동할만한 곳도 없어 쓸쓸하고 외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따라서 다른 학교에서도 노인들이 교내 어느 한곳에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운동여건을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다.

박옥희(용호3동)

오륙도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010-2533-7913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폐기물 배출 점검·단속

아파트 주민들이 실내 인테리어 후 산업폐기물을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니 남구청에서 홍보 및 계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우정렬씨의 건의에 답변 드립니다.

건설공사 중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하여야 하고, 폐석면, 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이 함유된 폐기물이 100kg 이상 발생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밖의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 물 및 100kg 미만 지정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마대(50ℓ)에 담아 수요일 저녁에 배출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청에서는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단속으로 폐기물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김봉민>

방화용수 동결방지 완료

방화수를 얼지 않게 관리하자고 건의하신 감만2동 강민수 씨의 의견에 답변 드립니다.

매년 산불조심기간(2011.11.01~2012.05.15)을 맞이하여 우리 구에서는 산불방지 홍보물(입간판 등 4종) 805점을 현재 설치하여 산불 없는 남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용수 동결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액 (4ℓ×32개, 사계절형)은 기존 37개 초소 방화용수에 희석(15%) 조치 완료했고, 포스화약제(20ℓ× 12개)는 기존 5개 초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역경제과·안주현>

■ 나의 생각

인성교육이 학교폭력 막는다

박 재 본

최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련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마련한 대책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다.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개인적 특성,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구조 등 다양한 원인들이 서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접근으로 가장 우선적인 것이 '인성과 인권교육'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방관자가 있다는 것은 간과되어 왔다.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의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해 주는 시스템 마련에 관한 것이다.

사실상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조용히 덮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행정적 조건에서는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예방과 해결까지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체제보다는, 사안의 해결과 사후상담 활동 등은 제3의 객관적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담인력에 관한 것이다.

현재 부산지역에 상담실 및 전문상담인력을 갖추고 있는 학교는 전체 623개 학교 중 278개 학교로, 50%도 되지 않는다.

초·중·고 44만 명 학생을 위한 정규 상담교사는 고작 49명뿐이며, 전체 상담인력의 82%인 230명이 인턴교사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들은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1년마다 학교를 이동하고 있다.

아이들과 겨우 유대관계 형성을 해 놓고 마음을 열고 속내를 이야기 할 때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고를 시키는 것이다. 어떤 교사가 자기 학생을 잠시 들렀다가 가는 인턴교사에게 상담을 의뢰하겠는가?

이 밖에도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권확립에 힘써야 하며,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들이 요구된다.

학교폭력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교육시스템의 기본 구조에 대한 개혁뿐 아니라 가정교육, 청소년 문화 등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자꾸만 삭막해져가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꿈과 희망을 심어보자.

부산광역시의원

■ 살며 생각하며

초등학교 입학식 풍경

박 능 숙

봄이 시작되는 3월. 해마다 3월 2일이면 학교마다 어김없이 입학식이 있다. 문현2동에 있는 '성동초등학교' 입학식장으로 가는데 가느다란 봄비가 내렸다.

이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나도 아들의 손목을 부여잡고 입학식장으로 향했었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아들이 경쟁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을 설쳤던 기억이 난다. 한편으로는 학부모로서의 설렘과 어깨가 무거웠던 지난날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다. 입학식을 맞이하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교문은 처음으로 밟는 관문이다. 관문은 관의 문을 들어선다는 뜻이면서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꼭 거쳐야 할 단계를 의미한다. 그 관문에는 '입학을 축하한다'는 플랜카드가 어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다.

플랜카드 전, 후로 진풍경이 벌어졌다. 여러 학원에서 홍보차 나온 이들과 그들이 타고 온 차들로 뒤죽박죽이다. 그들은 학용품이며 전단지를 나눠주며 상업적인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어수선하고 복잡한 교문은 달라져 가는 교육환경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았다.

입학식은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강당으로 들어선 순간, 복도며 강당에 빡빡하게 들어찬 인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입학하는 학생 수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물론 이모, 고모를 비롯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동원된 것 같았다. 지금은 자식을 한, 두 명 낳다 보니 모두가 귀하고 귀한 자식들이다. 그들에게 입학식은 개인의 특별한 날이 아니라 집안의 경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70년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식은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었다. 특별했다면 커다란 옷핀으로 이름 석 자 또렷하게 적힌 이름표와 하얀 손수건을 가슴팍에 고정했을 뿐이다. 그때의 이름표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주홍글씨처럼 내 가슴에 각인되었다. 손수건은 코를 닦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지만 형식적일 뿐 그다지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꽃샘바람이 을씨년스럽던 운동장에 서 있으면 누런 코는 연신 두 줄로 흘러내렸다. 교장 선생님 훈시는 기찻길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다. 누런 코가 완행열차라면 투명한 콧물은 급행열차같이 속도가 빨랐다. 급하게 흘러내리는 코를 닦으려면 손수건보다 소매가 적격이었다. 손수건으로 코를 닦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교양과 예의를 갖춘 어른스런 동작이었다. 소매 끝으로 코를 재빨리 슥~ 닦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다 보면 소매 끝은 늘 얼룩덜룩한 누런 콧물이 누룽지처럼 눌러 붙어 있기 일쑤였다.

요즘 아이들은 목에 긴 줄을 걸어 이름표를 단다. 코를 흘리는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지 손수건을 다는 아이들은 없다. 그만큼 건강이나 위생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복장도 놀랍기만 하다. 남자아이들은 무스나 젤을 발라 차분히 가라앉힌 머리, 깔끔한 양복에 하얀 셔츠, 넥타이까지 맨 모습이 단정해 보였다. 여자아이들은 머리를 양 갈래로 땋거나 깔끔하게 빗어 올려 분홍 핀을 꽂는데다가 핑크 원피스를 입은 모습은 완전히 동화 속의 공주 같았다. 게다가 6학년 선배들이 만들었다는 왕관을 신입생들이 쓰고 있으니 그들은 모두 왕자와 공주였다. 반마다 각기 다른 색깔의 왕관을 쓰고 학부모와 활짝 웃으며 단체사진을 찍는 모습도 내게는 낯설었다.

교장 선생님의 훈시도 역시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길고 지루하기만 하던 훈시가 요즘은 간단명료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좋아하는 것 같았다. 김부곤 교장 선생님은 학교를 믿어달라는 것과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

담임선생님의 소개가 이어졌는데 5개 반이 모두 여선생님이다. 심지어 졸업식 때까지 남자 선생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그만큼 귀하다 보니 남자 선생님은 로또로 불릴 만큼 학부모로부터 인기다. 교사들의 성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 되고 있다는 말이 실감났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요즘은 그 반대가 되었다.

한 반의 학생 수는 26명 전후라고 한다. 70명에 육박하던 예전에 비하면 삼 분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때는 학생 수가 많아도 교권침해니 인권, 학교폭력이니 왕따 같은 말들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조현자 교감 선생님'은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차분할뿐더러 체격 또한 좋아졌다고 한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입학식이면 한 자리에 가만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날뛰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다.

학부모 안연주씨는 박서령(1학년 2반) 학생이 항상 정직하고 반듯한 아이로 자라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했다. 새싹처럼 해맑은 서령이. 차분하고 반듯한 행동으로 봐서 부모의 바람대로 자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입학식이지만 이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늘 다르다. 사람은 다를지 몰라도 입학식에 선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은 염려와 포부로 가득 찰 것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입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래본다.

수필가·기자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인 李 福 熙 / 편집주간 河 仁 相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품>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